

국어 기출해설

해설 - 김춘호 교수(종로공무원학원)

문 1.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바닷물이 퍼레서 무서운 느낌이 든다.
- ② 또아리 튼 뱀은 쳐다보지 마라.
- ③ 머릿말에 쓸 내용을 생각해 뒤라.
- ④ 문을 잘 잠궈야 한다.

[정답] ① [어문규정, 난이도 下]

[풀이] ‘퍼레서’는 ‘퍼렁다’의 활용형이다. ‘퍼렁다’는 ‘ㅎ’불규칙 용언으로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고 어미가 ‘-애/-에’로 바뀌어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특히, ‘ㅎ’불규칙 용언의 경우 모음조화를 철저히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랑다’는 ‘파래서’로, ‘퍼렁다’는 ‘퍼레서’로 활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 또는 그런 모양’을 나타낼 때에는 ‘뽀리’를 써야 한다. 참고로 ‘또아리’는 ‘갈퀴발’의 다른 끝을 모아 휘감아 잡아맨 부분’을 나타낸다.

③ ‘머리말’은 사잇소리 현상이 나지 않고 [머리말]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고 ‘머리말’로 써야 한다.

④ ‘잠궈야’는 ‘으’탈락 용언으로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 ‘으’가 탈락하여 ‘잠가야’로 활용해야 한다.

문 2. 밑줄 친 말의 의미는?

몇 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 겨우 상대방을 만나 보았다.

- ①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 ②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 ③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 ④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정답] ③ [어휘, 난이도 中]

[풀이] ‘말길이 되다’는 관용적 표현으로 ‘남에게 소개하는 의논의 길이 트이다’의 의미이다. 이 문항의 경우 ‘몇 달 만에야 겨우 상대방을 만나 보았다’를 통해 문맥적으로 정답이 ③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맛을 붙이다 -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 ② 말이 있다 -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 ④ 말꼬리를 물다 -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문 3.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찜: 바늘 () 개를 묶어 세는 단위
 - 제(劑):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 첩
 - 거리: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 개

- ① 80

② 82
- ③ 90

④ 94

[정답] ④ [어휘, 난이도 中]

[풀이] ‘찜’은 ‘바늘 24개’를 의미하고, ‘제’는 ‘탕약 20첩’을 의미하고, ‘거리’는 ‘오이나 가지 50개’를 의미한다. 따라서 숫자의 합은 ‘94’이다.

문 4.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 ㉠春雨暗西池 /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두운데
輕寒襲㉡羅幕 /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愁依小㉢屏風 /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牆頭㉣杏花落 /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 ① ㉠

② ㉡
- ③ ㉢

④ ㉣

[정답] ④ [문학, 난이도 上]

[풀이] 허난설헌의 <봄비>로 규중 여인의 쓸쓸함을 노래한 한시이다. 이 작품은 규중 여인의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를 ‘봄비’, ‘찬바람’, ‘살구꽃’과 같은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중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살구꽃(杏花)’으로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살구꽃이 지는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 허난설헌, <봄비>

- 갈래 : 한시, 5언 절구
- 성격 : 서정적, 애상적, 독백적
- 압운 : 幕(막), 落(락)
- 제재 : 봄비
- 주제 : 규중 여인의 고독과 외로움
- 특징 :
 - ①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냄
 - ② 섬세하고 애상적인 독백조로 노래함
- 출전 : 『난설헌집』

문 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 너머 성권농(成勸農) 집의 술 닉닷 말 어제 듣고
 누운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테고
 아히야 네 권농 겨시나 덩좌슈(鄭座首) 왔다 히여라

- ① ‘아히’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도,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다.
- ② ‘언치 노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 ④ 화자는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다.

[정답] ② [문학, 난이도 中]

[풀이] 정철의 시조로, 전원생활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언치’는 ‘말이나 소의 등을 덮는 담요’를 의미한다. 만약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소를 발로 박차고 담요를 깔고 타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로 당시 정철과 같은 고위 관료가 타는 것은 ‘남여(籃輿)’로 뚜껑 없는 가마를 가리킨다.

[오답 풀이]

- ① ‘아히’는 2인칭 청자로 호격 조사 ‘야’가 결합하여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면서, ‘성권농(成勸農)’에게 자신이 왔음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 ③ ‘박차’는 누워 있는 소를 발로 박차는 행위를 통해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 ④ ‘성권농(成勸農)’의 집에 술이 있었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소박한 풍류를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철, <재 너머 성권농 집의~>

- 작가 : 정철(1536~1593)
- 성격 : 풍류적, 전원적, 해학적
- 주제 : 향촌 생활의 풍류와 흥취
- 특징 : 성권농의 집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생략을 통해 경쾌하게 서술하였으며,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멋스럽게 구사함
- 현대어 풀이

고개 너머 사는 성 권농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누워 있는 소를 발로 차서 일으켜 깔개를 얹어서 눌러 타고
 아이야, 네 권농 계시냐? 정 좌수 왔다고 아뢰어라.

문 6. 밑줄 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 지루한 ㉠장광설로 인해 관중들은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 정보화 사회일수록 ㉡유언비어가 떠돌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변명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 | ㉠ | ㉡ | ㉢ |
|-------|------|----|
| ① 長廣舌 | 流言蜚語 | 辨明 |
| ② 長廣舌 | 流言非語 | 辯明 |
| ③ 長廣說 | 流言蜚語 | 辯明 |
| ④ 長廣說 | 流言非語 | 辨明 |

[정답] ① [어휘, 난이도 상]

[풀이] ‘장광설’은 ‘長廣舌(길 장, 넓을 광, 혀 설)’로 쓰며,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또는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을 의미한다. 이때 ‘舌’ 대신에 ‘說’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언비어’는 ‘流言蜚語(흐를 유, 말솜 언, 바퀴 비, 말솜 어)’로 쓰며,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을 의미한다. 이때 ‘蜚’ 대신에 ‘非’를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변명’은 ‘辨明’으로 쓰며,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또는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힘’을 의미한다.

문 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老主人의 腸壁에
無時로 忍冬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여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風雪소리에 잠착하다.

山中에 冊曆도 없이
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忍冬茶>

- ①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이다.
- ②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③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 ④ ‘잠착하다’는 ‘여러모로 고려하다’의 의미다.

[정답] ④ [문학 / 어휘, 난이도 중]

[풀이] 정지용의 <인동차>는 한겨울 산속에서 인동차를 마시고 있는 노주인의 모습에서 동양적이며 은일적인 세계관이 드러난다. 또한 여기서 ‘인동(忍冬)’은 ‘겨울을 참고 견딤.’이라는 의미로, 암담한 시대적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화자의 인내를 노래하고 있다. ‘잠착하다’는 ‘참척하다’의 원말로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쓰라’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 ① ‘5연’에 ‘산중에 책력도 없이’를 통해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임을 알 수 있다.
- ② 2연과 3연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이 시각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 ③ 작품 전체적으로 한겨울 산속에서 인동차를 마시고 있는 노주인의 모습을 나타내며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 정지용, <인동차>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감각적, 회화적, 관조적, 탈속적
- 제재 : 인동차
- 주제 : 정신적 고결함을 지키면서 혹독한 현실을 견디는 삶의 자세
- 특징
 - ① 시적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여 대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함.
 - ② 눈 내리는 겨울, 깊은 산 중이라는 탈속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③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색채의 대비가 돋보임.
 - ④ 풍경을 회화적,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대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문 8.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것은?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로, 해요체를 +로 표시한다.

- ① [주체+], [객체-], [상대-]
- ② [주체-], [객체+], [상대+]
- ③ [주체+], [객체-], [상대+]
- ④ [주체-], [객체+], [상대-]

[정답] ④ [문법, 난이도 下]

[풀이] 문장의 주어(주체)는 ‘나’이므로 주체 높임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체-]이고, 부사어(객체)인 ‘선생님’을 부사격조사 ‘께’를 통해 객체 높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객체+]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듣는 상대인 ‘숙희’에게 반말체인 ‘드렸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이다.

문 9. ‘시’에 대한 견해 중에서 밑줄 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형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가치,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미(美)는 어떤 맥락으로 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 이름 모를 곡을 듣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곡이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기 위한 선전곡이었음을 안 다음부터 그 곡을 혐오하듯 미(美) 또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 ①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
- ② 시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고, 개혁의 전망도 제시할 수 있다.
- ③ 시를 읽으면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 ④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한다.

[정답] ① [비문학, 상]

[풀이] 제시문에서는 미에 대해 자율적 견해와 타율적 견해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적 견해는

예술의 내재적이고 선형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칸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택지 중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해 감상하고자 하는 ①이 칸트의 입장과 부합한다.

문 10. 밑줄 친 말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 ㉠과적 나을 놈은 생겨나도 앓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먹을 것이 더러 있느냐면 있기는커녕 부쳐 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있대야 남의 결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벼를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면 이 땅 삼천리강산에 늘여 놓인 곡식이 말짱 뉘 것이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 두고 일이 다 무슨 ㉢난장 맛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세 번이나 걸려서 구메밥으로 ㉣사관을 틀었다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몫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반.....

- 김유정, <만무방>중에서 -

- ① ㉠: 심심풀이
- ② ㉡: 안잠
- ③ ㉢: 몰매
- ④ ㉣: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정답] ② [어휘, 난이도 上]

[풀이] ‘새우잠’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주로 모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을 의미한다. ‘안잠’은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파적(破寂): 심심풀이
- ③ 난장(亂杖): 몰매
- ④ 사관(四關):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문 11. 다음 시조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내히 죠타 흥고 님 슬흔 일 흥지 말며
 님이 흥다 흥고 義아니면 좃지 말니
 우리는 天性을 직회여 삼긴 대로 흥리라

- ① 率性 ② 善交
- ③ 遵法 ④ 篤學

[정답] ① [문학 / 어휘, 난이도 上]

[풀이] 이 작품은 변계량의 시조로, 종장에서 천성을 지키며 생긴 대로 하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조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성을 좋음’을 의미하는 ‘솔성(率性)’이다.

[오답 풀이]

- ② 善交(선교): 잘 사귀
- ③ 遵法(준법):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킴
- ④ 篤學(독학): 학문에 충실함.

※ 변계량, <내히 조타 하고~>

- 갈래 : 평시조, 단형시조.
- 성격 : 교훈적(敎訓的), 계세적(戒世的)
- 제재 : 의(義)
- 주제 : 의(義)에 따라 천성에 따라 살려는 의지
- 현대어 풀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이며
남이 한다고 해서 의롭지 못한 일을 따라 하지 말아라.
우리는 올바른 천성을 타고난 대로 지키며 살아가리라.

문 12. 밑줄 친 말이 표준어인 것은?

- ① 그 사람은 허구헌 날 팔자 한탄만 한다.
- ②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닫하게 되었다.
- ③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을 뒤어내고 있었다.
- ④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뉘연히 대중 앞에 나섰다.

[정답] ② [어문 규정, 난이도 중]

[풀이]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의 의미인 ‘깨닫하다’는 표준어이다.

[오답 풀이]

- ①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의 의미의 표준어는 ‘허구하다’이다. ‘허구하다’의 활용형은 ‘허구헌’이 아니라 ‘허구한’이다.
- ③ ‘살살이 뒤져서 들춰내거나 찾아내다’는 의미의 표준어는 ‘뒤어내다’가 아니라 ‘뒤져내다’이다.
- ④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의 의미의 표준어는 ‘뉘연히’가 아니라 ‘버져이’이다.

문 13. 밑줄 친 말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強度)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日照)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 조지훈, <지조론>중에서 -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어휘, 난이도 上]

[풀이] ‘일조(日照: 날 일, 조)’는 ‘햇볕이 내리쬐م’을 의미한다. 하지만 문맥상 ‘짧은 시간’ 내지 ‘하루 아침’을 의미하는 ‘일조(一朝: 한 일, 아침 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확집(確執: 확실할 확, 잡을 집): 자기 의견을 굳이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
- ② 위의(威儀: 위엄 위, 거동 의):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 ③ 강도(強度: 강할 강, 정도 도): 센 정도

문 14.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그때 느꼈던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없는 농지거리, 별들의 잉잉 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문법, 난이도 中]

[풀이] 밑줄 친 단어들은 기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용언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흐드러지다’, ‘충만하다’, ‘없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반면에 ‘찍다’는 명령과 청유형이 가능하고, ‘설레다’는 현재 관형사형 어미 ‘-는’이 있기 때문에 동사이다.

문 15.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 다만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소수 특정 부분의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착은 연구의 정밀화, 집중화 등을 통하여 자기 지식을 확장해 가며 차츰 폭 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쿤은 ‘정상 과학’이라고 부른다.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종 실험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특정 기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연구는 이제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상 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방식과 관습, 기법 등이 하나의 기반으로 통일돼 있다는 것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수하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쫓

아가지는 않으며, 다만 연구의 세부 내용이 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연구가 고작 예측된 결과를 좇아 갈 뿐이고,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규정되는 상태에서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쿤은 이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답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대개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자연 현상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서의 예측 결과와 실제의 현상을 일치시켜 보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수께끼 풀이이다.

- ① 예측된 결과만을 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
- ② 이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
- ③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 ④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

[정답] ③ [비문학, 난이도 중]

[풀이] 두 번째 문단에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이 ‘정상 과학’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 패러다임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임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과학의 시기에 패러다임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정상 과학의 시기에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네 번째와 마지막 문단에서 열정과 헌신성이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 후,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 방법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② 첫 문단을 통해 처음에는 불완전함을 알 수 있지만, 세 번째 문단을 통해 해석의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으로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 ④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통해 정상 과학의 시기는 패러다임이 정착된 시기이고, 패러다임은 세계관의 통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문 16. ‘잡다’의 유의어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어	예문
죽이다	㉠
취다	㉡
어렵하다	㉢
진압하다	㉣

- ① ㉠: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 ② ㉡: 그들은 먹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 ③ ㉢: 술집 주인은 손님's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
- ④ ㉣: 산불이 난 지 열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정답] ③ [어휘, 난이도 下]

[풀이] ㉔의 ‘잡다’는 ‘담보로 맡다’의 의미이다. ‘어렵하다’의 의미로 쓰인 예로는 ‘이 물건의 가치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원은 넘을 것이다.’가 있다.

문 17.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그래서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내야 한다.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간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선 다소 안정적이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이들은 상당 시간 물 밖에 노출되어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패각과 덮개 판을 꼭 닫은 채 물이 밀려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 ① 조간대에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 ②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③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답] ②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두 번째 문단에서 조간대 중부의 환경적 특징은 제시되어 있지만, 그 곳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마지막 문단에서 총알고둥류가 있는 조간대는 물이 가장 올라오는 지점이고, 두 번째 문단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은 조간대 상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조간대 상부이다.
- ③ 마지막 문단에서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함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첫 번째 문단에서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여러 환경적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문 18. 다음의 개요를 기초로 하여 글을 쓸 때,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론: 최근의 수출 실적 부진 현상
본론: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
1. 가격 경쟁력 요인
ㄱ. 제조 원가 상승
ㄴ. 고금리
ㄷ. 환율 불안정
2. 비가격 경쟁력 요인
ㄱ. 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
ㄴ. 품질 개선 부족
ㄷ. 판매 후 서비스 부족
ㄹ. 납기의 지연
결론: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

- ①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기업이 연구 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④ 정부가 수출 분야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답] ① [비문학, 난이도 下]

[풀이] 본론에서 수출 경쟁력 부진의 원인을 밝히고 있고, 결론에서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담을 수 있는 ①이 정답이다.

문 1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건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은 아니었지요.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실히 아로새겨져 있을 거예요.

-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② ㉡은 ㉢과 ㉣을 아우르는 말이다.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④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답] ③ [문법, 난이도 中]

[풀이] ㉢과 ㉤은 할머니를 가리킨다.

[오답 풀이]

- ① ㉢ ‘저’는 1인칭 대명사이지만, ㉠ ‘그쪽’은 2인칭 대명사이다.
② ㉡ ‘우리’는 ㉢ ‘할머니’가 아니라 ㉣ ‘저’만을 가리킨다.

④ ㉔ ‘본인’은 ‘할머니’를, ㉕ ‘당신’은 청자를 가리킨다.

문 20. 다음 글의 논증 구조를 옳게 파악한 것은?

㉑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㉒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㉓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㉔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㉕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① ㉑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 ② ㉒은 ㉑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 ③ ㉓은 ㉑, ㉒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 ④ ㉕은 ㉓, ㉔에 대한 근거이다.

[정답] ③ [비문학, 난이도 下]

[풀이] ㉑, ㉒은 동물도 인간의 언어와 같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논점이다. ㉓은 역접 관계 접속어 ‘그러나’를 통해 앞 문장을 부정하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㉑은 ㉓, ㉔에 의해 부정되고, ㉕이 이 글의 주제문이다.
- ② ‘즉’은 앞 문장에 대한 상술을 하는 접속어이다.
- ④ ㉓, ㉔을 근거로 하여 ㉕이 결론으로 도출되고 있다.